

1924-25년 식민지 정치지성의 대외인식에 드러난 자주와 사대의 교차: 중국혁명을 바라보는 안재홍의 시각과 태도*

윤대식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 식민지 지식인이 언론을 통해 전개한 담론에 투영된 대외인식의 자주성과 사대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하고 정치지성으로 재탄생하는 단서를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체념과 순응에 의해 생각 없는 노예상태에 머물렀는지를 타진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한국 지식인의 문제의식은 언론을 통해 담론으로 제기되었고, 한국의 공적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당위적인 권리인 동시에 보편사의 맥락에서도 발전의 필연성을 담보하는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역사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흐름이 접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한국의 독립과 해방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지성적 담론을 통한 언론투쟁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안재홍(安在鴻)을 거론할 수 있다.

안재홍의 대외인식은 외형상 개인적 관점에서 측면관-종횡관-면면관으로 확장되어 국외자의 입장으로 국제정세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안재홍의 시선은 실질적으로 내부, 즉 한국의 독립과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환원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시선과 태도가 단지 외형상의 모습만으로 고준담론의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 될 수 없고, 유럽열강과 중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바라보았던 모습에서 여전히 기존 사대주의적 중화관과 제국주의적 진화론에 순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주제어 | 정치지성, 안재홍, 중국혁명, 면면관, 자주, 사대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서론

아렌트(H. Arendt)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대인의 비극적 죽음을 복종적 순응성과 대비시킨 검사(檢事)의 질문을 소개하고 당시 수용소에 있었던 다비드 루세(David Rousset)의 “고문당한 희생자들이 저항 없이 스스로 교수대에 목을 매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긍정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저 일어난 것은 아니다 … 교수대로 올라가기 전에 희생자를 이미 파괴하는 데 성공한 체제가 한 민족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상의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안다. 복종하는 가운데, 바보처럼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인간의 행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묘사를 전달하며 전체주의의 공포와 어둠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생각 없는(thoughtless) 존재로 전락시켰음을 밝혔다. 왜냐하면 공포감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용기를 갖기 어렵게 하고 순응적 태도를 결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세계를 공포, 무질서,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1930년대를 ‘어두운 시대’(Dark Times)라는 정치적 은유로 표현했다(아렌트 2010).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치를 위한 공적 영역이 빛을 잃은 시대 또는 부재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한국 근현대사는 ‘어두운 시대’로 규정될 수 있다(홍원표 2013, 321). 특히 식민지로 전락한 일본 제국주의 하의 한국은 공적 영역을 박탈당하고 빛을 잃은 채, 근대 편입 이후 지상과제였던 자주적 근대화(modernization on self-reliance)를 이끌 주체들이 실종되었다. 동시에 공적 영역의 부재=정치주체의 실종이라는 상황은 ‘누가 어떻게 근대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성찰(collective reflection)이라는 새로운 지적·정신적 모색과 성찰의 주체들을 출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결과 근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지식인이 갖는 정신적 종속성과 정치적 삶의 부재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성적 담론의 형태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

을 것이며, 그들의 고민과 행동 역시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인 동시에 ‘독립’과 ‘해방’의 목표성취를 위한 모티브의 이중성-공적 동기의 빛과 사적 욕망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상기한 문제의식이 전제될 수 있다면, ‘어두운 시대’로서 식민지 시기 지성적 투쟁을 전개했던 누구의 무엇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 자치의 공적 영역이 사라진 식민지 상황에서 과연 ‘정치적’ 문제제기나 담론형성이 가능이냐 했던 것일까? 혹 가능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점에서 1919년 3·1 운동을 겪은 후 식민당국이 10년의 무단통치가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제거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이른바 ‘문화정치’로 선회하면서 1920년 1월 8일 “당국에 출원 중이던 동아일보(발행인 이상협), 조선일보(발행인 예종석), 시사신문(발행인 이동우)의 삼신문(三新聞)이 허가”¹⁾했던 식민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문제의식은 언론을 통해 담론으로 제기되었고, 한국의 공적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당위적인 권리인 동시에 보편사의 맥락에서도 발전의 필연성을 담보하는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역사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흐름이 접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한국의 독립과 해방의 필연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성적 담론을 통한 언론투쟁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안재홍(安在鴻)을 거론할 수 있다.

왜 안재홍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리고 비록 안재홍의 항일투쟁이 언론을 통한 지성적 투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굳이 그의 대외인식에 대한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언론 투신 동기를 보자면, 안재홍이 1914년 와세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중앙학교 학감을 거치면서 1919년 3·1운동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나약한 무력함에서 찾아진다. 이로 부터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상심만 하던 내가 나서면서 징역살이를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가엾어서 나는 언론진(言論陣)을 베풀고 운동단락후의 민중이나 계

1) 一記者, “庚申年の 거듬(上),” 『개벽』 6호(1920. 12. 15), p. 60.

몽하겠다”²⁾는 소극적인 자기애를 토로하며 1920년 대한민국애국청년단 사건으로 3년 복역 후 1924년 최남선의 시대일보 논설반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안재홍이 투사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언론이라는 경로를 통해 담론의 형태로 투쟁할 결정을 내렸던 성립 선행조건은 무엇일까? 주목할 사항은 1914년 일본 유학을 마치기 전 떠난 중국여행에서 안재홍 개인이 목도한 중국 제2혁명의 실패과정, 그 결과 언론 투신 이후 안재홍의 지성적 담론의 빈번한 주제이자 관심사항이었던 중국혁명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³⁾ 왜 그랬던 것일까? 당장 국내로 복귀하면서 식민당국과 결전을 진행하는데 진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안재홍의 시각이 제 3자인 중국내부의 혁명전개 과정으로 분산되었던 것일까? 혹시 여전히 한국의 해방과 독립은 과거 동아시아 질서의 패권자로서 중국 왕조의 후원과 원조에 기대어야 한다는 습속화 된 사대주의였을까?⁴⁾ 아니면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일본의

2) 이정식, “민세 안재홍의 『자서전』,” 『신동아』(1976. 11), p. 300.

3) 현재까지 안재홍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양질의 면에서 상당히 방대한 편이다. 1978년 겨울 친관우가 안재홍의 「연보」를 정리하면서 출발한 안재홍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서 1980년대 정운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운재(정운재 1991;1993;1999;2002;Chung 1988)는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에서 ‘조선정치철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사리주의’를 집중 조명하였는데, 이로써 신민족주의론의 핵심과 실체를 상당 부분 해명하였다. 또한 안재홍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역사학계의 연구업적으로 한영우(1987), 김인식(1997;1998a;1998b;1998c;1998d;2000a;2000b;2003;2005;2007;2011;2012;2015), 김수태(2003)의 연구는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상과 이에 기초한 민족사학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고, 윤대식(2005)의 연구는 신민족주의론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의 내용을 추출했으며, 이상익(2011)은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다사리주의를 접근하고 있다. 반면 신민족주의론이라는 각론에 집중된 연구와 달리 안재홍의 국제정세관을 주제로 다루거나 그 핵심적인 용어와 개념정의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김명구(2018), 윤대식(2013b; 2018)에서 안재홍의 구미 인식, 중국 인식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있다.

4) 1920년대는 3·1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략적 전회를 가져왔지만, 그 실질은 문화적 식민지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식민지 지식인들의 투쟁노선 역시 역사 문화적 수단을 채택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예측을 통해 패망의 필연성과 동시에 한국 독

제국주의 침탈로부터 중국-한국 모두 독립과 해방의 불가분적 관계성을 가졌다고 본 것일까? 그렇다면 할지라도 중국내부의 혁명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 아직은 접점을 이루기에는 시기상조 아니었을까?

본 연구는 한 식민지 지식인이 언론을 통해 전개한 담론에 투영된 대외인식의 자주성과 사대성을 찾아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하여 정치지성으로 재탄생하는 단서를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체념과 순응에 의해 생각 없는 노예상태에 머물렀는지를 타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정확히 알기 위한 성립 선행조건에 대한 이해이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패권적 배경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역사발전 방향에 대한 좌표설정 의 단서를 제공한다.

II. 현실진단의 청진기로서 대외인식: 측면관(側面觀)에서 종횡관(縱橫觀)으로

1920년대 극동정세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은 현실인식을 위한 이론적 기제로 역사를 채택함으로써 세계사로부터 극동정세 그리고 자국 역사의 고유성을 조망하는 방식으로 환원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이해와 정반대로 자국의 식민 상황 타

립의 필연성 간 상관성을 역사법칙과 현실정국의 흐름을 통해 실증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패망을 전제로 해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조국재건의 모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공화제를 수립했던 중국혁명에 대한 강렬한 인상으로 말미암아 중국내부에서 전개되는 공화정의 변질과 혁명노정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인식이 '독립'의 개념화와 결부하여 기존 중화적 질서의 사대의 모습에서 국제질서의 호혜적 관계로의 대등함을 보다 드러내는 한편 중국과의 문화적 친화성과 유사성에 대한 심정적 의존이라는 그림자를 내포한 것일 수도 있다.

파라는 과제로부터 동아시아 질서의 과제로, 그리고 세계질서의 과제로 확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이미 19세기말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패권이동을 경험하고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성공과 실패, 구미열강의 개입과 선의에 따라 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의 구축여부가 결정되며 그 여부가말로 세계질서의 보존여부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윤대식 2018, 191).

안재홍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안재홍은 “오인은 우리의 동포-아니 타인에게 의탁할 곳 없는 조선인들의 운명을 개척하여 보고자 생평(生平)의 노력을 다하여야겠다. 여기에서 오인은 일래(日來)로 주장하는 구제적 성충(救濟的 誠忠), 순도자적 정열(殉道者의 情熱), 희생, 노동 등을 또 다시 말하는 것”⁵⁾으로 민중계몽을 자신의 역할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인의 정치적 각성과 재탄생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반면 안재홍은 그 단서를 식민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왜 안재홍은 조선인의 정치적 각성과 재탄생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또한 앞으로 전개될 안재홍 자신의 대외인식과 시각으로서 측면관-종횡관-극석관-면면관으로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선행조건으로서 한국인들의 정신적 각성을 보여주는 3·1운동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찾아진다. 1919년 3·1운동부터 파리강화회의 종결 시기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은 만세시위운동-무력양성운동-외교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가 파리강화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국제연맹의 결성이 연기됨에 따라 외교활동에 의존한 독립의 기대는 좌절되었기 때문이다(반병률 2006, 109-118).

이로부터 안재홍의 현실분석은 세계정세의 흐름과 역사를 자국의 내부정세와 역사와 교차하게 된다. 안재홍은 “20세기의 미해결문제도 아세아주가 가장 그 대부(大部)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파리 강화회의나 그의 유일의 산물인 국제연맹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기뻐하는 낙천가가 있었던지 오인은 알 바

5) 안재홍, “아아 그러나 그대는 朝鮮사람이다,”(시대일보 1924/05/20), 2면 1단.

아니어니와, 대전란 이후의 세계가 여전히 구세력의 타성과 구제도의 결합의 위에 그 불합리한 추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타파를 열망하는 예측적 종족이나 또는 어떠한 광명을 추구하는 신흥계급의 비상히 분노불평할 바”라고 지적한다.⁶⁾ 그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민족자결주의와 같은 이상론과 달리 제국주의적 예측의 길로 진행되었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다(윤대식 2013b, 222).

안재홍은 《조선일보》로 옮긴 초기 국제동향의 글을 연이어 쓰는데, 이를 측면관(側面觀)으로 명명한다. 1924년의 국제정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영국총선이었는데, 노동당의 맥도널드 내각이 스탠리 볼드윈의 보수당에 의해 실각되자 노동당 집권으로 공산화될 것을 우려한 자유당 지지자들의 표 이탈과 보수당 지지로 인해 허버트 애스퀼스의 자유당이 더 이상 영국 의정사에서 그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건에 주목했던 것이다.⁷⁾

안재홍은 영국총선을 “금번의 영국정쟁에 관하여 오인은 다만 보수당과 노동당의 대전이라고 보았다. 자유당이 보수당과 연합하여 노동당 격파의 공동전선을 꾸밌지마는 자유당으로서는 무의미 또 무용한 일이었다. 전통적으로 세계적 대정당의 성세를 유지하여 오든 자유당이 근년에 점점 쇠퇴에 돌아가서 이제는 사십인 내외의 최소정당으로 된 것은 시세의 시키는바 인위적으로 어찌하지 못함”⁸⁾이라고 진단한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안재홍의 진단은 정확했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안재홍은 영국 총선결과에 대한 자신의 진단을 통해 “『리버럴리즘』을 그의 기본원리로 한 자유당의 대표적 정강인 네덜란드 자치, 자유무역 등이 전자는 이미 과거의 일에

6) “우드 齊藤 멜란”(시대일보 1924/05/31), 『선집 I』, pp. 49-50.

7) 총선 결과 보수당은 총 7,418,983표를 득표해 득표율 46.8%로 412석을 획득했고 5,281,626표를 획득해 33.3%의 득표율에 머물러 151석에 그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던 반면, 우려했던 공산당은 단 0.2%의 득표율로 1석에 그쳤고 자유당은 2,818,717표로 17.8%의 득표율로 40석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8) 안재홍, “英國政爭 側面觀.”(조선일보 1924/11/03) 1면 5단 석간.

속하였고 후자는 또한 아담 스미스 이래의 진부한 설로써 그의 실체가 다만 대자본 옹호의 대편법(大便法)임에 불과한바 그들이 오늘날에 진퇴양난한 중간당(中間黨)의 비애로서 다만 몰락의 길을 가지는 대로 갈 밖에 없는 것은 운명의 법칙 또한 어찌하지 못할 것”으로 예단하는 동시에 “볼셰비키와 담쌓은 영국민을 충동하여서 압도적 대승리를 얻은 보수당 측들의 숨씨는 과연 누백년 간 자유와 정의를 자가의 전유물과 같이 생색을 내가며 어느 틈에 전 세계의 권리를 도거리 하기에 구기는 구석이 없는 영 제국 대표적 노회가들의 본색이라 할 것”이라고 분석함으로써 영국총선의 최대 화두가 영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여부였음을 지적한다.⁹⁾

더 나아가 안재홍은 영국 총선의 결과가 프랑스-러시아 관계로 확장 연계된 것임을 지적한다. 안재홍은 혁명 러시아를 정식 승인한 프랑스의 결정이 사실 “정의(情誼)가 깊은 맥도널드 내각을 성원코저 함”에서 비롯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보수당의 압승으로 인해 “좌경연합의 에리오 내각에 불리한 태도로 나오리라고 불 정계(佛政界)에서는 우려중이라 하며 향자(向者) 제네바의 평화의정서는 비준거절이 되고 명년의 군축회의도 유회(流會)될 것을 기우(杞憂)”하는 상황임을 상기하며 “오인의 심려하는바 용이치 않은 반동이 구주정국에 미친다하면 그는 용허(容許)치 못할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다.¹⁰⁾

왜 안재홍은 당대 유럽 열강의 얽혀있는 관계성에 주목했던 것일까? 사실 식민지 지식인의 입장에서 안재홍이 유럽 열강의 정국운영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삶과 공적 영역조차 박탈당한 상태에서 관념적 유희이거나 강대국에 대한 동경에 불과했던 것 아닐까? 사실 그 저변에는 영국-프랑스 관계와 프랑스-혁명 러시아 관계의 경위로 말미암아 영국이 혁명 러시아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중동방면에 있어 노국(露國)의 페르시아만의 남하이나 인도의 위협 등은 1907년의 영러협약으로도 완전히 해결된바가 아니오 혁명러시아(赤露)로

9) 안재홍, “英國政爭 側面觀.”

10) 안재홍, “英國政爭 側面觀.”

변화된 오늘에도 의전히 영 제국의 위협이며 해양으로 진출코저 하는 노국의 희망은 또한 금고(今古)가 일반”¹¹⁾이라는 역사적 이해가 깔려 있다.

이제 안재홍의 시각은 혁명 러시아(赤露)가 다시 재개한 동방정책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횡관(縱橫觀)으로 전환된다. 안재홍은 “노농 노국정부최고위원회는 블라디보스톡(海蔘威)로써 자유항을 삼고 명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다 … 전란 이래 오래 두색(杜塞)된 감이 있든 구아(歐亞)의 교통이 다시 긴밀해질 것과 및 상항(商港)으로서 블라디보스톡이 일층 변화해질 것을 상사케 할 것이고 또는 조선해안에 있는 우리의 제항구가 따라서 발전될 가망이 있는 것을 기뻐할만할 뿐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러시아의 동방진출 재개가 곧 “일본 대륙정책의 일대 근거지가 되는 대련 여순에 관계되는 바와 및 남만주 철도에 타격되는 바를 고찰함은 한 필요한 일일 것”이라는 상호관련성을 제기한다.¹²⁾

이러한 종횡관은 안재홍이 “조선은 현하 각반 사회의 현상이 가장 우려할 경지에 있다. 그리고 그는 북으로 노국(露國)을 접하고 서로 중국을 연하여 그들의 안위휴척(安危休戚)은 시시각각으로 절대한 영향을 감수케 되는 바 … 금일의 일본이 그 타성적 평정의 시기에 있어서 그의 국제적 우월한 지위로서 엄연히 동양의 『맹주』를 금요(矜耀)하는 것은 피등의 자처할 바이라 오인의 간섭할 바 아니 거니와 만일 일조(一朝)에 차국(次局)이 반복되어 수합치 못할 경우이면 일일본(一日本)이 또한 어찌(奈何)하라?”¹³⁾라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이 혁명 러시아에서도 그대로 계승될 경우 유럽열강의 혁명 러시아 공식승인이 결국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재개시킴으로써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정세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점에서 러시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종횡관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1925년에 접어들어 안재홍은 가장 첨예한 국제문제였던 워싱턴 군축

11) 안재홍, “英國政爭 側面觀.”

12) 民世, “赤露東侵 縱橫觀(一),” (조선일보 1924/11/22) 1면 5단.

13) 民世, “露中大陸을 縱觀하면서: 東亞의 將來를 思함,” (시대일보 1924/04/03), 2면 1단.

회의 결과를 “진정한 역사견지로 보아서 오인에게 동경하고 아무 것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의 국제사에 있어서 오인의 유의할 2대 관목(關目)이 있다. 그 1은 일영동맹의 폐기에 의한 일본고립의 완성 및 영미협조의 축진이요, 그 2는 일본군비의 차별적 제한 및 중국에 대한 우월의 폐기 그것”이라고 질서변동의 단서로서 초점을 맞춘다.¹⁴⁾ 특히 안재홍은 미국-일본 간 갈등이 “일미의 갈등은 20세기의 중대한 현안이요 현실이 주는 인류의 일대 번민(煩悶)이다 … 전후 20년에 미국의 배일(排日)운동은 혹은 선량한 풍속을 장해(戕害)하고 그의 저렴한 노은(勞銀)으로 백인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이유로서도 출현하고 혹은 일본의 서부제주의 토지와 및 그 기타 특권을 점탈한다는 경제적 이유로서 토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회사의 기업을 제한하게 되며 혹은 다시 일본인은 동화치 않는 침략적 국민이요 공화정치와 합치되지 않는 특종국민으로서 그들의 존재와 번식 및 그 세력의 발전은 곧 미국의 국민적 통일을 방해하고 그의 존립을 위협(威嚇)한다는 정치적 이유로서 하여 … 항상 무진한 침략의 야심을 품는 『반갑지 않은 인민』이라고 생각되는 까닭”¹⁵⁾이라는 미국-일본 간 관계의 과거와 현재(今昔), 즉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에서 비롯했음을 분석함으로써 “워싱턴 회의의 결과로 전쟁의 원인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분반(噴飯)할 일”¹⁶⁾이라고 미-일 간 갈등 폭발을 예단한다.

이와 같이 1925년 시작과 함께 국제정세의 과거와 현재인 금석(今昔)을 조망하는 안재홍의 총횡관은 미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동하는 유럽 열강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분석으로 종결된다. 안재홍은 “오인이 먼저 1924년의 중요사관을 기술하여 구주 제국의 정국의 추이를 논할 새 … 현재 피폐한 구주의 열국민이 더구나 그의 불행한 집단적 전략으로 인하여 이미 그의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졌고 또는 그의 영속적인 공

14) 民世學人, “一九二五年의 最大懸案: 日米關係의 今昔觀(上),”(조선일보 1925/01/01) 5면 1단 신년호.

15) 民世學人, “一九二五年의 最大懸案: 日米關係의 今昔觀(上).”

16) 民世學人, “今年의 世界 米國私觀(五),”(조선일보 1925/01/08) 1면 4단.

황사태에 있는 재정, 경제의 사정은 더욱이 황금의 홍수를 만난 세계적 자본별인 미합중국의 기식(氣息)을 승접(承接)하기에 급급한 형세”¹⁷⁾라고 1925년을 기점으로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의 유럽 개입을 바라보며 패권이동 현상을 지적한다.

안재홍은 “현재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고 서서히 그 고답적인 미국제일주의를 내두르면서 자못 세계적 대풍운을 일으킬 의사와 및 그 실력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전제로 “금후 얼마동안 세계정국의 주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미국의 정정은 다만 대일관계의 특수한 기술로써 그의 전표를 표명할 수 없는 바이요 더구나 현하의 세계 대세에 있어서 미국의 국정을 도외시하고서는 그 정국의 추이를 이해키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임을 환기시키면서도 미국의 패권이 최소저항선로(最少抵抗線路)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¹⁸⁾

더불어 안재홍은 “이탈리아의 현하의 국정은 비록 세계적 대파동을 미칠 처지는 아니되나 개조국(改造國)의 도정에 있는 열국민의 사태에 돌아보아 또한 오인의 일중요한 관조를 요할 바”¹⁹⁾라고 혁명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탈리아까지 포괄한다. 흥미로운 분석은 안재홍이 이탈리아에서 전개되는 혁명과정의 원인으로 “감정적인 남국인(南國人)은 발발적의 파쇄가 아니면 맹목적인 귀복을 즐기는 기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자기발전의 본능과 자기편하의 본능을 어떠한 개인이나 국민에도 그의 병존한 사실을 발견하겠지마는 남국인의 기습(氣習)은 더욱 이 양극 사이에 분방하기 쉬운 감정적 천분(天分)을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이탈리아인의 기질을 거론한다는 점이다.²⁰⁾

이로부터 안재홍은 “뭇솔리니씨의 주장하는 ‘잘못된 데모크라시의 사상’에 대하여 ‘항상 그를 해결하는 힘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그의 독재적 수단은 언제든지 항상 승리의 개선만 물을는지? 자기편하의 본능을 자못 전형적으로 발휘하는 이 남국인의 태도는 자못 해방운동사상의 일(一)중요유형이 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17) 民世學人, “今年の 世界 米國私觀(一).”(조선일보 1925/01/04) 1면 4단.

18) 民世學人, “今年の 世界 米國私觀(一).”

19) 民世學人, “今年の 世界 伊國私觀(一).”(조선일보 1925/01/09) 1면 5단 중간.

20) 民世學人, “今年の 世界 伊國私觀(一).”

3내부정국의 혼란에 대한 방향을 관조하면서 “이 동요된 이탈리아의 정국 상티 칼리즘과 아니키즘의 한조(寒潮)가 자못 도도하게 그 사회의 하층에 잠류하는 이탈리아의 정국은 과연 언제까지 그 역(力)의 파지자 못솔리니씨로 하여금 사보아 왕가를 그의 ‘뇌호(牢乎)한 근저(根柢)’로서 군대를 그의 ‘표현하는 국민향상의 기관’으로써 능한 민중혁명사상에 일제외례(一除外例)를 열을 수 있을는지 자못 확고한 의문”이라고 흥미진진한 태도를 보여준다.²¹⁾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안재홍의 개인적인 시각과 태도(私觀)는 “오늘날의 조선문제는 이미 조선인만의 조선문제가 아니라 전동아인의 조선문제이요, 현하의 동아는 또한 세계 열국의 국제적 각축장이요, 침략주의 봉예(鋒銳)의 집중지인즉, 조선문제는 문득 전 세계의 대세와 함께 천동(遷動)됨을 부인치 못할 형세”²²⁾라고 한국의 내부분제로부터 동아시아 정세인식으로, 다시 동아시아 정세변화가 보편적 세계사와 조응한다는 측면관-총횡관-금석관으로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유럽의 국제정세에 대한 국외자의 시각으로서 측면관-총횡관-금석관을 식민지 내부의 진단으로 환원할 경우, 안재홍의 진단수준은 식민지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논리적 수순일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 극동정세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관심 그 자체가 그들이 가진 태생적 한계조건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안재홍에게 식민지 상황은 공적 영역의 실종상태인 동시에 식민당국에 의해 구축된 공적 영역에 대해 국외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안재홍에게 내부의 상황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전히 측면관일 수밖에 없는 한계조건을 가지며, 이로부터 식민지 한국의 상황을 규정하는 외부조건으로서 동아시아의 정세변동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정세변화는 서구열강의 유럽 내 각축과 별도로 과거 동아시아 질서의 구심점이었던 중

21) 民世學人, “今年的 世界 伊國私觀(二),”(조선일보 1925/01/10) 1면 6단 석간.

22) 안재홍, “反動線上의 世界와 그 趨勢,”(『개벽』 55호. 1925. 1. 1.)『선집 6』, p. 267.

국의 상황과 현재 동아시아 질서의 구심점으로 작동하는 일본의 상황이 교차한 결과이기도 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안재홍은 일본 유학 중 개인적으로 1911년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을 수립한 중국의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열망이 손문과 원세개의 정치적 타협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로 변질되었던 현실에 실망했기에 손문 사후 본격화 한 중국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연 조선인의 정치적 각성과 재탄생을 통해 독립과 해방을 성취하려는 본연의 목표를 위해 이질적인 조건을 가진 중국의 근대화에서 단서를 찾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인지의 여부이다. 혹시 와세다 대학에서 학습하고 졸업 이전 중국혁명에 대한 동경과 선망을 가지고 중국여행을 경험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지식인이 빠질 수 있는 일종의 사대주의적 경외심은 아닐까? 만약 상기한 안재홍의 대외인식이 강대국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고, 일본조차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전망한 것이라면, 안재홍의 현실진단과 서구열강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제국주의적 시각의 변용이자 사대주의의 그림자라는 의심을 벗기 어려울지 모른다.

더구나 만약 국제정세와 보편사의 흐름이 한국의 독립과 해방에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과 전망을 표출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여전히 과거의 사대-조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증은 아닐까? 훗날 안재홍이 중국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중국문제를 좋아하느니 보다는 그것이 극동대세의 변전되는 도정에 있어서 관계되는바 많은 까닭”²³⁾이라고 환기시키면서 “중국문제는 모든 국제문제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긴절한 관계가 있는 바”²⁴⁾라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의 리트머스로서 중국의 정국추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할 때조차, 또 비록 중국혁명에 대한 동경과 체험을 했던 안재홍 입장에서 중국정세의 변화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사대주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23) 안재홍, “中國形勢와 日本의 地位,”(조선일보 1926/12/09)『선집 1』, p. 184

24) 안재홍, “危難中國의 壁上大觀,”『신조선』 3권 7호(1934. 12. 15.), p. 11.

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 정국추이에 대한 안재홍의 시선과 역사적 사실을 같이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중국혁명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면면관(面觀)에 내재한 자주성?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혁명은 앞서 언급했듯이 손문과 원세개의 정치적 타협으로 원세개를 통령으로 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수립으로 인해 제 2혁명의 좌절, 1916년 7월 원세개의 사망과 함께 단기서(段祺瑞)와 풍국장(馮國璋)의 권력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단기서가 북경정부를 장악함으로써 1917년 남방토벌을 위한 대안으로 장작림의 봉천군벌을 관내에 진출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었다(송한용 2004, 229-230). 그것은 이후 중국의 정치변동을 병란(兵亂)으로 보게 하는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1923년 소련대표로 중국을 방문한 요페(Joffe)와 손문이 상해에서 회담하고 손문의 영도 하에 중국혁명사업을 원조할 용의를 표명하고 특히 손문이 열망한 혁명군대의 조직강화를 원조할 것을 제의한다. 그 결과 장개석이 소련에 파견되어 군사시찰을 하고 민족혁명 성공을 위해 국민당의 조직개편과 대중적 기반구축을 위한 공산당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이로부터 국민당 일전대회(一大會)에 각 성 대표 6명, 해외지부 대표를 합한 165명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대조·진독수·가평산·모택동·임백거 등 공산당원이 포함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민족혁명당으로서 국민당의 실질적 역량이 일신되었다(박상우 1981, 471). 1924년 1월에 이르면 정식으로 국공합작이 성립되었고 손문은 삼민주의 이념 하에 국민당을 개조하면서 북경정부 및 각 지역의 군벌을 타도하는 반(反)군벌과

반(反)제국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국민혁명을 선언한다(손승희 2004, 240).

유럽 열강들이 얽힌 국제정세에 대해 국외자의 시각으로서 측면관-종횡관-금석관으로 확장되었던 점에서, 안재홍의 시각은 종횡관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국민혁명을 해부한다. 그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개인적 호승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 편입을 가져온 환경과 변수로의 서세동진이라는 세계사를 조망할 때, 개항에 따른 근대 편입과정이 문명전환 또는 정신의 위기로 인지되었던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이후 폭압적인 식민지배의 기제 하에서 민족적 저항 의지와 민족의식을 발현하려고 했던 최초의 경험에서 비롯된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다. 즉 서양적 근대의 도전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응전이라는 맥락에서 일관된 정치적 성찰과 실천의 목표는 ‘자주적 근대화’(Modernization on self-reliance)를 통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었음을 시사한다.

우선 안재홍은 “오인의 가장 요해치 못할 바는 중국 각파의 수령들이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도 열국지적 전국책적의 미몽한 구몽을 깨지 못하였다. 금번에 러중 교섭의 전말을 보건대 혹은 봉천, 직예(奉直) 양벌의 군권적 갈등의 희생으로서 혹은 고왕(顧王) 양인의 정파적 각축의 대상으로서 형제가 장혁(牆鬪)을 일삼는 동안에 국가의 권위와 정국의 안정은 드디어 허망에 들어갔도다. 근착한 외전은 빈번히 북경정국의 동요와 러중교섭의 파열을 전하니 직예파의 정으로 일시의 소강을 근보(僅保)하든 중국의 정국은 그 장래의 분규를 어찌 역도(逆睹)할 수 있으랴! … 광동의 손문씨 노농정부 계획설을 전하니 오인은 그 무계(無稽)함을 믿거니와 또한 가장 흥미 있는 어떠한 암시를 주는 바”²⁵⁾라고 군벌 간 합종연횡하는 혁명의 변질을 실망했지만, 국공합작 이후 손문의 북벌계획에 기대를 표명한다.

이제 1924년 9월 국민정부가 군사회의에서 북벌을 결정하고 10월 북벌을 위해 건국군(建國軍)으로 명명한 군제통일을 시도하는데, 손문은 당을 중심으로 한 군권통합작업을 강화하고 북벌을 진행한다. 안재홍의 시각은 동아시아 정세로

25) 民世, “露中大陸을 縱觀하면서 東亞의 將來를 思함,”(시대일보 1924/04/03) 2면 1단.

환원되어 보다 세밀한 분석을 보여준다. 이것은 안재홍이 1924년 9월 《조선일보》에 합류하던 것과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1924년 11월 4~9일까지 6차례에 걸쳐 <中國兵亂 面面觀>을 기고하며 면면관(面面觀)으로 명명하게 된다.

“방금 각처의 군장들은 대부가 아직도 형세를 관망하는 모양이요 풍옥상(馮玉祥)과 함께 거사하였다는 왕회경(王懷慶)은 지금도 직파(直派)를 위하여 고전하는 형적이 있고 오패부(吳佩孚)의 퇴로를 끊고 있다는 왕승斌(王承斌)도 일향냉락(一向冷落)한 감이 없지 않다”는 관망으로부터 출발하는 안재홍의 중국정세 분석은 오패부의 패퇴와 잠적 소문을 거론하며 “웬만한 일에 천명 민의를 들추어가며 토역(討逆)의 군(軍)을 잘 일으키는 것도 중국인이지만 형세가 기울어지면 후일의 재거(再擧)를 기하고 일신의 안전부터 꾀하기에 용한 것도 중국인이다. 구레를 들 것 없이 상해에서 패한 노영상(盧永祥)이 아직 최후의 혈전도 하기 전에 일본 쇼오킨 은행(正金銀行)의 삼백만원 예금증서를 끌어안고 허둥지둥 일본에 가서 기회만 바라보고 있던 것 같은 것이 그 적절한 사례(適例)”라고 냉소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거 중국혁명에 대한 안재홍의 기대와 전망이 단순히 식민지 청년 지식인의 경외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²⁶⁾

안재홍의 시선은 단기서와 오패부의 패퇴에 따라 남북각지에 있는 군벌 두목들의 태도에 집중된다. 우선 풍국장의 직예파는 장강일대를 근거지로 “장작림, 노영상의 영란(逞亂)한 죄와 역도 풍옥상의 정권강탈한 죄악을 규탄하여 선구가 되어 역적 풍옥상을 토벌하겠다고 통고”했다는 점을 전제로, 직예파의 군벌들에 대한 장래를 추론한다.²⁷⁾ 예를 들어 오패부의 심복인 장복래(張福來), 소요남(蕭耀南), 손전방(孫傳芳) 등과 장작림의 수하인 마연갑(馬聯甲), 장문생(張文生), 그리고 장작림의 부하인 16사단장 추분(鄒芬)의 직예파와 내통사건이 있는 뒤 오패부에게 가담한 채성훈(蔡成勳), 육금(陸錦), 왕회경(王懷慶) 등을 직예파의 승리 이후 조곤(曹錕)에게 귀순하는 수서양단(首鼠兩端)의 태도를 갖는 기회주의자들

26) 民世, “中國兵亂 面面觀(一),” (조선일보 1924/11/04) 1면 5단 석간.

27) 民世, “中國兵亂 面面觀(二).” (조선일보 1924/11/05) 1면 5단.

로 평가한다.²⁸⁾

안재홍은 직예파의 폭정에 따른 반직예파의 반격을 크게 7가지로 구별한다. 보경안민(保境安民)을 기치로 해서 단기서에게 가담한 정사기(鄭士琦), 복건회복운동을 주도한 허송지(許崇智)의 부하 정흥방(鄭興邦), 노도(盧燾)의 손전방 축출 계획, 오패부의 악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손문과 함께 무한에서 출병한 당계요(唐繼堯), 광동군정부부흥과 함께 손문의 독재에 불평을 품고 오패부를 성원했지만 다시 손문과 연합한 진형명(陳炯明), 강소성·절강성·복건성·안휘성·호북성·강서성 등의 민당(民黨) 유력자들, 염석산(閻錫山)의 출병, 주성광(朱聲廣), 하조린(夏兆麟) 등의 강만(江灣)에 있는 사단장들의 관망적 태도 등을 거론하면서 손문을 중심으로 국민당이 천하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북벌의 성공이 과연 혁명의 완성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²⁹⁾

안재홍은 이미 “법통의 회복과 및 국민대회의 개최로써 폐독재병(廢督裁兵)을 실행하고 화평통일을 초래케 한다는 열렬한 주장으로써 일시 천하의 인심을 집중하였던 오패부씨가 직예파에 대한 인심의 이반과 함께 점점 불리한 지위에 빠졌던 것은 사실 … 산해관과 북경으로부터 남하하는 풍장 양군의 협격 중에 들은 오패부는 이미 퇴세를 만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수병(手兵)을 거느려서 해로로 남방에 향하였다 하니 봉직전선(奉直戰線)이 이로써 무너진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진, 장의류의 중횡책으로써 수년래 결합된 唐孫段張(당계요, 손전방, 단기서, 장작림)의 과거를 검토하고 금후 형세의 추이를揣摩(揣摩)함이 또한 무용한 일이 아닌 것을 믿는다”고 전망했다.³⁰⁾

이러한 혼란을 중횡으로 관찰하는 안재홍의 시각은 이제 손문의 북벌성공 여부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단으로 나아간다. 즉 안재홍은 “아직도 공업이 완성치 못한 손중산은 언제나 같이 되풀이 하는 병란, 정변, 통전, 추대의 속에서 어찌

28) 民世, “中國兵亂 面面觀(二).”

29) 民世, “中國兵亂 面面觀(二).”

30) 民世, “中國兵變 面面觀(三),” (조선일보 1924/11/06) 1면 5단 석간.

또 되풀이 하는 화평통일의 건국의 대업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중국 급일의 화인(禍因)은 명마형정의 대권을 한손에 잡고 각각 일방에 할거한 세단(勢團)의 수령들에게 있다. 아직도 봉건제후의 구시대의 유물을 보존한 사회 사정에 있다”고 진단했던 것이다.³¹⁾

결국 신해혁명으로 출발한 중국혁명이 원세개와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독재정으로 변질되고 중국에 군벌 간 난립과 투쟁으로 왜곡되어 중국병란으로 명명될 정도로, 안재홍은 “중국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단예(端倪)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국정(國情)도 매우 단예할 수 없도록 어수선하다 … 침략적 음모에 마취되어 있다. 이제 段,孫,張(단기서, 손문, 장작림) 3거두를 중심으로 신해혁명의 근본정신에 의하여 송두리째 다시 민국을 개조한다 하지마는 상술한 국정과 그 배후에서 준동하는 국제적 마수는 또 다시 어떠한 탈을 쓰고 그 형세를 전복하려 할 것”³²⁾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이 안재홍의 면면관은 중국혁명이 동아시아의 패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외연의 이해와 함께 중국내부의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여전히 자신들의 불안한 상태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국제관으로 반영한 셈이다.³³⁾

1925년에 접어들면 안재홍의 면면관은 손문의 죽음 이후 북벌성공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데도 적용된다. 1925년 1월 시국수습을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되었을 때, 손문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도중 간암으로 쓰러진다. 안재홍은 《조선일보》 1월 28일자 사설에서 <孫中山 先生을 弔함>을 써서 “1927년 1월 26일 북경발 전은 중국의 혁명원훈 중산 손문씨의 서거를 보하니 오호 진(眞)이나 비(非)이나. 일편의 흥음은 이방의 청문자로 하여금 오히려 출연(恍然)히 경달(驚怛)함을 금치 못하는 바”³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다.³⁵⁾

31) 民世, “中國兵變 面面觀(四),”(조선일보 1924/11/07) 1면 5단.

32) 民世, “中國兵亂 面面觀(六),”(조선일보 1924/11/09) 1면 5단.

33) 그것은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실존양상, 그리고 언론을 통한 논변의 투쟁수단이라는 조건의 조합으로 인해 국제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처방이 원천적으로 곤란했던 안재홍의 한계조건을 보여주며, 그 결과 안재홍의 대외인식은 훗날 ‘직접 관여하지 않고 앉아서 성공과 실패를 구경만 한다’는 사전적 풀이대로 벽상관(壁上觀), 그리고 냉안관(冷眼觀)의 태도로 귀결된다(윤대식 2013b, 216).

안재홍은 “무한의 혁명이 한번 벌어지면 세위는 400여 주(州)를 진감하고 성문은 세계의 이목을 용동(聳動)케 하여 270년래 강대한 권력을 파악(把握)하였던 만청의 조정은 홀지(忽地)에 백기를 세우고 동방 오천재 전제의 고국(古國)으로 하여금 문득 만인공화의 신정체를 수립케 하니 오호! 씨(氏)는 어찌 그 만고의 위인이 아니냐?”라고 공화주의를 수립한 혁명가로 손문을 평가하고, “오족공화의 주장은 다시 그 혁명완성의 지도원리가 되었던 바이오 인민의 간곤(艱困)과 세계의 대국은 다시 그 혁명의 사업이 전도의 요원함을 보이는지라 이에 삼민(三民)의 주의와 오권(五權)의 헌법은 또 그의 개신하고 확충한 혁명의 대강으로 된 바”라고 손문의 오족공화론과 삼민주의를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한 지도원리로 소개하며 손문을 추도한다.³⁶⁾

앞서 중국에서 전개되는 정치변동을 ‘中國兵亂’으로 명명했지만, 안재홍은 이제 3월 12일 손문의 서거 이후 ‘中國革命’으로 재평가하면서 손문에 대한 자신의 단상을 드러낸다. 안재홍은 동학혁명을 반추하며 당시 전봉준을 지칭하던 녹두가의 ‘八王(靑)새’가사를 손문의 이미지에 투영한다.³⁷⁾ “소위 팔왕(八王)의 새 설

34) 안재홍, “孫中山 先生을 弔함.”(조선일보 1925/01/28) 1면 1단.

35) 손문의 사망일은 1925년 3월 12일인데, 안재홍의 조사를 겸한 이 논설은 1월 28일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손문은 1월 베이징으로 가던 중 간암이 악화되어 쓰러지게 되었는데 2월 24일 손과, 송자문, 공상희 등을 증인으로 자신의 지도강령에 따라 국민혁명을 완수할 것으로 유언으로 남긴다. 그런데 왕정위가 구술한 유언에는 처인 송경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한 달 뒤 다시 증인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유언으로 자신의 서적, 의복, 주택 등 일체를 송경령에게 주어 기념으로 삼도록 한 뒤 3월 12일 사망했다. 그렇게 보면 안재홍은 손문의 서거 소식을 듣고 조사를 쓴 것이지만, 아마도 간암으로 쓰러진 첫 소식을 서거소식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손문 사망 이틀 뒤인 3월 14일 《조선일보》 사설 <孫中山과 中國革命(一)>에서 “작년에 죽음을 전하고 객월(客月)에 죽음을 전하였고 이제 또 죽음을 전하니 이번에는 확실히 죽었으리라”라고 거듭된 오보였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36) 안재홍, “孫中山 先生을 弔함.”

37) ‘八王새’라는 것은 이미 팔호 안에 들어가 있는 ‘파랑(靑)새’를 의미한다. 아마도 파랑새라는 가사의 발음대로 八王이라는 한자를 가차해서(아마도 한편으로 8도에서 봉기했던 동학교도들을 지칭하는 의미도 내포하는 듯)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說者)가 지칭하는 고부반란의 수령 전봉준 푸릇푸릇한 덧잎 속아서 봄철로만 짐작하고 아직 완실치 못한 부드러운 날개로서 감히 운소(雲霄)에 사무치도록 날아보고자 벼등치다가 필경 휘날리는 백운(白雲) 몰아치는 모진 풍상에 무참히 패몰된 당시의 이인(伊人)들 이르지 말라. 난폭낭자(亂暴浪藉)한 오합의 중(衆)이었다고 경우와 시대가 이 미숙한 반역아들로 다만 가내하(可奈何)를 비가(悲歌)할 밖에 없도록 하는 바”³⁸⁾라는 감정이입으로 표현되는 안재홍의 동학혁명 평가는 미성숙한 혁명의 필연적인 실패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반역도로 내몰렸던 전봉준을 비롯한 행위자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준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희생과 비애를 말하는 동시에 손문의 죽음이라는 현실 역시 이러한 혁명가들이 지닌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편성을 보여준다는 안재홍의 인식으로 전개된다. 즉 안재홍에게 “향산현 일개 한미한 가문의 소년으로 일찍 하와이에 유학하고 홍콩 오문(澳門)에서 의업(醫業)을 열었다가 개연히 사역 만인을 위하여 해방의 의전(義戰)에 일신을 바치고자 멸만흥한(滅滿興漢)의 표어로서 천하혈성의 남녀를 규합하여 흥중회(興中會)의 혁명적 비밀결사를 수창하던 손중산의 일도” “八王새가 시대와 경우의 희생이 된 것”이었다.³⁹⁾

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까? 안재홍은 손문의 성공과 실패의 경로를 “멸만흥한의 성공자이다. 제정파괴의 승리자이다. 그는 1912년을 정점으로 전(前) 세기가 낳은 민족혁명(民族革命)의 제일관(第一關)에서의 승리자로 최후의 개가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만민평등의 민권혁명(民權革命)이라는 금성철벽(金城鐵壁)인 제이관을 향하여 참패자의 행정을 시작할 밖에 없었다”⁴⁰⁾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안재홍이 성공과 실패로 등치하는 민족혁명과 민권혁명은 앞서 손문

38)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一),”(조선일보 1925/03/14) 1면 5단 석간.

39)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一).”

40)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二),”(조선일보 1925/03/15) 1면 5단 석간.

의 조사와 전봉준에게서 보인 연민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즉 손문 자신이 설정한 목표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멸만홍한의 백열(白熱)한 민족주의의 혁명가로서 만인공화(萬人共和)의 민권혁명의 이상을 겸하여 가지는 것’이었으며,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외부 이민족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민주주의로 가는 경로에서 독재와 군벌의 난립이라는 변질로 실패했던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전봉준의 ‘파랑새’와 같은 운명은 민권혁명 실패라는 점에서 유비(類比)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은 “손중산의 사령(辭令)에 의함이거나 아니거나 그 혁명의 기운은 이미 남중국 일대로부터 깊이 장강 유역 중부중국 누십리의 지방에 넘치게 되었다 … 혁명의 남경점거와 함께 그 확고한 형세 자못 동요할 수 없는 바가 있어 권모재략 자못 단예할 수 없는 원세개가 한편으로 노대범용(老大凡庸)한 경친왕과 및 선통제실의 고아 과부를 통갈하고 한편으로 혁명의 수령들과 양양반복의 절충을 거듭하여 필경은 혁명진압의 군령을 받고 조주(濠州)까지 진출하였던 제십이진통제 장소희의 국정변혁의 위혁적 제안과 함께 청 황실의 퇴위와 공화정치의 운을 보게 되니 이것이 중화민국탄생의 사정”으로 중화민국 탄생 과정을 소개하면서, 손문이 1912년 남경에 제 1차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된 일을 ‘일생득의(一生得意)의 추(秋)’라고 찬탄하는 반면 타협혁명이라는 조롱과 군벌들에게 권력을 내주고 다시 망명의 길에 접어들었던 손문의 운명이 박행(薄倖)한 위인임을 보여주는 한계라고 아쉬워한다.⁴¹⁾

그렇다면 민족혁명의 성공자라는 점에서 안재홍이 손문의 중국혁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를 식민지 상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를 돌파할 단서로 채택하려는 기대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민권혁명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우리 역사에서도 실패한 민권혁명으로 인해 식민 상태로 전락한 현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지 구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안재홍은 중국혁명의 실패를 손문의 우유부단함과 취약한 지지기반으로만 진단하지 않는다. “중국의 혁명은 그 원(源)을

41)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三),”(조선일보 1925/03/16) 1면 5단 조간.

신흥한 혁명지사의 흥중에 발하였지마는 그 공은 대부가 군권의 두목들에 인하여 조성되었고 하물며 그 성과는 또 대부가 일세의 효옹 청조의 불충한 구신 북양군벌의 총수 원세개 기인(其人)의 만복양심(滿腹野心)과 혼신권모(渾身權謀)에 의하여 종결되었으니 팔삭동인 중국혁명이 홀지에 황패(荒悖)한 보모(媒母)에 의하여 돈연(頓然)히 발육의 불량을 보게 됨은 또한 당연치 아니한가? 그러나 그는 어찌 다만 보모의 죄책일 뿐이라? 그 가족의 불민함이 모두 그 책임을 균분해야 할 것”⁴²⁾이라는 안재홍의 진단은 중국혁명의 변질이 원세개와 같은 독재자와 손문과 같은 혁명가의 책임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직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안재홍이 중국혁명을 민족혁명의 성공사례로 평가한 대목이다. 그것은 손문이 말한 ‘오족’의 의미가 얼마나 포용적이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위기의 돌파구체로서 민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민족적 정체성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필요로 하고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자로서 안재홍에게 우선적인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오족’이라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정체성을 동질화하려는 손문의 목적은 청 제국의 쇠락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있었는데,⁴³⁾ 이 조건은 청 제국이 패권을 장악했던 시점에서 반청흥한의 슬로건을 제시했던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근대적 민족인식과 극히 대조된다.⁴⁴⁾ 그 단서는 17세기 중국 실학(實

42)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四),” (조선일보 1925/03/18) 1면 5단 석간.

43) 손문의 오족공화론은 무창에서 의거할 당시만 해도 손문의 정치주장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신해혁명으로 청 제국이 몰락하면서 몽골과 티베트와 같은 변방의 이탈 독립 요구가 일어나고 그것은 만주족의 지배로부터 한족의 독립을 요구한 종족의 혁명인 신해혁명과 목표가 같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손문은 중화민국 임시정부 성립 이후 본격적으로 ‘오족공화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즉 중국은 한족만의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고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으로 대표되는 다민족 국가이며 이들이 공화국의 국민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족공화 주장의 계기는 몽골인이나 티베트인들과 같은 변방 소수민족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일 뿐 한족 중심의 민족융화를 우선하는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었다(배경환 2011, 8-13).

學)의 대표적 인물인 고염무(顧炎武)의 언명에서 확인된다.

고염무는 “백성은 나와 같은 형제”(民, 吾同胞)라는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전거로 삼아 “오늘날의 백성은 나를 포함하여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요, 백성을 구제하지는 말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⁴⁵⁾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동포’라는 용어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 책무의 각성을 가져다주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주지시켰다(윤대식 2013a, 337). 물론 고염무와 손문 간 인식의 연계성 여부를 차치할지라도, 안재홍의 민족 개념 역시 이러한 정치적 책무의 각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따라서 안재홍의 관심은 현재의 식민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해방과 독립 모두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책무의 각성과 이행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앞서 혁명을 겪는 중국으로부터 추출하려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손문에 의해 출발한 신해혁명이 민족혁명으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민권혁명 곧 공화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세개에 의한 독재와 군벌들의 난립이라는 변질을 가져온 이유를 제 2혁명으로서 계축혁명(癸丑革命)도 “가석(可惜)한 것은 무자각한 중국의 군민(軍民) 오직 황백(黃白)의 다과(多寡)로써 그 거취를 수의(隨意)로 하니 제 1차 혁명 이래 각 성에 부식되었던 혁명과 출신의 청년의 도덕 등은 모두 자못 질풍황엽(疾風黃葉)을 흔드는 듯이 일시에 분산하는 액운을 보게 되고 인하여 난당추포(亂黨追捕)의 명령은 이 손중산 이외 무수한 혁명지사들로 하여금 다시 의구한 망명객의 궁도(窮途)에 방황하게 되었다”⁴⁶⁾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혁명을 바라보는 국외자로서 안재홍은 또 다른 국외자의 시선

44) 근대 민족주의의 출현에 따라서 비로소 민족이 형성되고 주체화된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현재의 민족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04년을 기점으로 한다(이황직 2011, 112).

45) 『日知錄』卷19, 「直言」, “張子有云, 民, 吾同胞. 今日之民, 吾與達而在上位者之所共也. 救民以事, 此達而在上位者之責也. 救民以言, 此亦窮而在下位者之責也.”

46)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五),”(조선일보 1925/03/19) 1면 5단 석간.

을 인용하여 손문의 죽음으로 혁명이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그것은 “파리의 『두탄』지는 타협혁명을 조소하였다. 런던의 『타임스』는 『그들이 금일 흡연(翕然)히 공화(共和)의 선명(善名) 하에 모여드는 것은 공화와 동무하는 책임은 자각치 않고 다만 호접(胡蝶)이 미장화(薇薔花)를 바라고 군집함과 같은 뿐이라』하여 중국인의 무절제한 태도는 그 공화정체의 전도에 대하여 위구(危懼)의 념(念)을 품게 하였다. 오직 워싱턴의 『스타』는 중국의 공화가 제정보담도 많은 곤액을 당하겠지마는 그 중국의 결과는 매우 선미한 바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이 타협혁명의 말류는 금일까지 다만 그 곤액과 위구를 반복하여 원훈 손중산의 서거는 보되 오히려 그의 안정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⁴⁷⁾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외자로서 안재홍은 손문을 현실정치의 실패라는 성적을 낸 경솔한 이상주의자로 보았을까? 안재홍은 손문 사후 북경과 광둥에서 전해지는 국민당의 상황을 전하면서 “말하지 말라, 현대는 민중본위의 시대이라 일개인의 존망으로 사회의식의 흥폐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중국민당 금후의 운명이 어떠한 것을 별문으로 하고 중국의 파멸을 예기하지 않는 이상 손중산의 품었던바 이상이 진행되는 시대의 서막과 함께 필경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은 명백한 일일 것”이라고 손문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이상을 강조하면서도 “잡박한 각과 인물을 포용한 국민당이 금후 상당한 분해작용을 일으키어 그 순화(純化) 정화(淨化)의 길을 각각 임의로 나아가야 할 것은 필연한 형세이요, 따라서 그 세력의 감살(減殺)을 보게 됨도 또한 면치 못할 이세(理勢)일 것”이라는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⁴⁸⁾

이와 같은 안재홍의 태도는 사실상 한국 내부의 민족운동 노선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연유한다. 왜냐하면 문화정치로 인해 외형상 순화된 식민통치 구조가 실질적으로 더 폭압적이고 공포정치의 은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운동자이나 사회운동자이나 또는 참우(僭遇)하게 지사의 반열에서 우유(優遊)하는 자이나 모다 색채선명·태도정확하게 분해하라. 분해할 터인데 분해치 않는 것은 오직 노마(駑

47)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四).”

48)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六),”(조선일보 1925/03/20) 1면 5단 석간.

馬)가 잔두(棧豆)를 그리워하는 것 같이 타성적인 허예(虛譽)에 못 믿어 할 일뿐인 까닭”⁴⁹⁾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안재홍이 사용하는 ‘분해’란 무슨 뜻이고 ‘노마가 잔두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타성적인 허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안재홍은 “재정리를 위한 분해”임을 전제로, “오직 정리, 즉 진정한 단합을 재현하여 그의 투력(鬪力)을 강대케 하기 위함으로서 … 다시 우경파에 인한 전선의 일대 분개(分開)를 보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욱이 주의(主義)에 인한 진정한 신단합(新團合)이 하루라도 바쁘게 출현하기를 고조치 아니할 수 없다”⁵⁰⁾고 그 대상을 명시한다. 즉 최남선·김성수·이광수 등 식민당국과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협력하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실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지식인들은 민족성을 개조하고 조선인 각자가 근대 서구적 시민으로 타시 태어나야 할 것과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민족개조론과 자치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정운재 2005, 37).

이미 그 단서는 1924년에 시작되었다. 안재홍은 “오늘날 조선인은 이 절대한 위경(危境)에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일기회(一機會)로써 온갖 비수(悲愁)와 우탄(憂嘆)과 고난 가운데에서 다 각각 순교자적 통렬한 참회로써 피와 땀과 한숨으로써 그의 비싸고 비싼 속죄와 부활의 대가를 치르기로 하자. 오인(吾人)은 주의(主義)와 주의(主義)의 충돌을 드디어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의자 간의 싸움이 되고 또 동족 간에 일치할 가망이 없다』는 일어(一語)는 해내외 이천만 민중의 참으로 맹성(猛省) 심성(深省)할 바 아닌가 … 아아 심화(深化), 순화(純化), 정화(淨火)! 이는 금일 조선인 그 스스로를 부활케 할 정신생활의 일로(日路)”⁵¹⁾라고 강조해야 할 정도로 식민 지배구조에 응전하는 민족운동 노선의 내부 분화가 곧 혼돈을 가져오는 이념적 충돌과 분열의 위협에 놓인 상태를 경고했던 상황이었다(윤대식 2018, 208).

49) 안재홍, “駑馬가戀棧豆,”(조선일보 1926/1/15)『선집 6』, p. 29.

50) 안재홍, “駑馬가戀棧豆,” 『선집 6』, pp. 29-30.

51) 안재홍, “深化·純化·淨火,”(시대일보 1924/05/09)『선집 5』, p. 39.

따라서 자기 자신의 내부문제에 대한 냉철한 성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손문에 대한 평가였지만, 안재홍의 손문에 대한 시선은 자신들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민의 연장선상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인은 그가 영웅인 것을 발견치 못하였다”⁵²⁾는 안재홍의 솔직한 진술은 손문을 혁명영웅으로 성화하지 않는다. 반면 공소한 이상주의자로도 폄하하지 않는다. 단지 안재홍은 “손중산은 또한 일절 중우에게 버린 바가 된 선구자의 고독 및 그 비애를 비상한 박행한 희생자인 것을 생각할 때 오인은 어찌 또한 만곡감개(萬斛感慨)와 함께 무쌍(無雙)한 경의를 그에게 표하지 않으랴”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대부가 모두 무지한 문맹인 중국에 있어서 항상 황백의 다과에 따라서 항배를 수의로 하는 그 군민들을 토대로서 공화정치를 단시일에 완성코자 하는 것은 워낙 불가능의 일이었다”고 혁명실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손문의 우유부단함과 이상보다 대중의 정치적 미성숙과 책무불이행을 거듭 강조한다.⁵³⁾ 사실 안재홍에게 손문은 실패한 혁명가인 동시에 그 실패로 인해 민권혁명으로 나아가도록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책무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한 혁명가였던 셈이다.

이렇듯 손문의 죽음을 계기로 현재 진행형인 중국혁명과정을 반추하는 안재홍의 실질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손중산은 또한 현하 중국사회상의 충실한 사진기로 봄도 가할 것이다. 보라! 서구의 평원에서 일어난 혁명의 중심은 이제 서서히 동점(東漸)하지 않는가?”⁵⁴⁾라고 손문의 공헌이 무엇 인지를 추출해냄으로써 사실상 식민지배를 받는 한국의 민족혁명을 통한 해방과 독립, 그리고 자주적 독립국가의 실질로서 민권혁명까지를 포석하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웅변한다. 그것이야말로 안재홍이 중국혁명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사대주의적 순응성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자주적 독립과 해방의 목표에 기초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지표일 수 있다.

52)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七),”(조선일보 1925/03/21) 1면 5단 석간.

53)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七).”

54) 民世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九),”(조선일보 1925/03/23) 1면 4단.

IV. 맺으며

1925년 말 중국의 직예-봉천 군벌 간 경쟁이 격화되는 권력투쟁 과정을 바라 보면서 “제국주의의 파괴를 목표로 돌진하려는 노농 노국이 있는 것과 및 만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한 권리를 오희하기 위하여 만주출병의 결심을 표명한 일본의 태도를 생각할진대 중국의 전화(戰火)는 점차 그 국제적 화인을 확대하는 도정을 급진하고 있다 할 것”⁵⁵⁾이라고 진단했던 안재홍의 시선집중은 이제 그 명백한 이유를 드러낸다.

“피압박의 민주의 신음하는 소리 자못 여실한 표현도 불가능한 이 때 멀리 서구의 추이하는 정정을 운위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물어보아 매우 결연한 바 있는 바저니와 이 서구에서 추이되는 국제정국은 또한 극동의 일각 조선인 대중의 우탄변민(憂嘆煩悶)할 밖에 없는 정치적 사정과 전연 물교섭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⁵⁶⁾는 대외인식의 대내인식으로서의 환원적 성격을 강조하는 안재홍의 궁극적인 의도는 “현재의 세계에는 그 국제정국을 지배하는 3개의 조류가 있다. 즉 전술한 자본적 자유주의자들로 형성된 열국의 지배계급들에 의하여 우이(牛耳)를 잡게 되는 국제연맹의 운동이 그 일(一)이니 … 현실적 국제정치의 중추적 기괄(機括)을 지은 자이다 … 노국(露國)을 대본영으로 한 공산당의 운동이 그 이(二)이오 비록 범박하여 규범할 수 없으나 소위 『유색인종의 불평』 혹은 『동방의 반역』 등의 문구로써 설명된 열약(劣弱)제국민의 민족적 각성에 의한 반항운동이 그 삼(三)이다”⁵⁷⁾라고 민족의 각성과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역사발전의 필연적 흐름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다.

당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변동과정은 안재홍의 개인적 경험과 결부되어 중국의 정치변동에 대해 관심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외형적인 판단조건으로 볼 수 있

55) 民世, “中國戰火의 再燃(一),” (조선일보 1925/11/27) 1면 4단.

56) 安民世, “一九二五年의 世界形勢大觀(三),” (조선일보 1925/12/24) 1면 4단.

57) 安民世, “一九二五年의 世界形勢大觀(七),” (조선일보 1925/12/30) 1면 5단.

지만, 사실상 그의 시선은 외연을 더 넓혀 보편적 역사흐름과 국제역학의 틀까지 확대된 것이었다. 그것은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어 자신들의 공적 영역을 박탈당하고 사적 영역에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지식인으로서의 약점이 아니라,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국외자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동했다. 왜냐하면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이 사실상 보편사의 흐름과 맞물려 동아시아 질서재편으로 환원되었고, 동아시아 질서재편을 위한 변동은 곧 식민지배에 놓인 한국의 내부 조건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식민지 지성의 일차 과제는 우리 내부의 공적 영역이 어둠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그 빛의 단서로서 대외인식의 외연으로 넓혀짐으로써 다시 그 외부의 빛으로 내부의 어둠을 진단하고 밝히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재홍에게 그 교집합은 중국내부의 정치변동 즉 청 제국의 쇠퇴와 함께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 자주적인 독립과 근대화를 목적으로 그 동력으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손문의 혁명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면 안재홍의 대외인식은 국외자로서 국제정세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재홍의 시선은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환원되는 것이었다. 즉 밖에서 진행되는 국제정치 변동과정이 식민지배라는 현상과 맞물려 있고, 이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실현 여부 역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하여 민족으로서의 결집과 식민으로부터 해방과 독립되었을 경우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한다.

결국 허용되어진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내부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들은 ‘대외문제’를 ‘담론’의 형태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지성적 수단을 채택했을 뿐이다. 그럴 경우 단지 그들이 보인 외형상의 모습만으로 고준담론의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 될 수 없고, 유럽열강과 중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바라보았던 모습에서 여전히 기존 사대주의적 중화관과 제국주의적 진화론에 순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역시 공정하

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주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성적 담론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그들을 명실상부한 ‘정치지성’으로 재탄생 시킨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1. 『선집』 미수록 자료

- 민세. 「露中大陸을 縱觀하면서 東亞의 將來를 思함」. (시대일보 1924/04/03) 2면 1단.
- 민세. 「露中大陸을 縱觀하면서: 東亞의 將來를 思함」. (시대일보 1924/04/03) 2면 1단.
- 민세. 「中國兵亂 面面觀(一)」. (조선일보 1924/11/04) 1면 5단 석간.
- 민세. 「中國兵亂 面面觀(二)」. (조선일보 1924/11/05) 1면 5단.
- 민세. 「中國兵變 面面觀(三)」. (조선일보 1924/11/06) 1면 5단 석간.
- 민세. 「中國兵變 面面觀(四)」. (조선일보 1924/11/07) 1면 5단.
- 민세. 「中國戰火의 再燃(一)」. (조선일보 1925/11/27) 1면 4단.
- 민세. 「中國兵亂 面面觀(六)」. (조선일보 1924/11/09) 1면 5단.
- 민세. 「赤露東侵 縱橫觀(一)」. (조선일보 1924/11/22) 1면 5단.
- 민세學人. 「今年的 世界 米國私觀(一)」. (조선일보 1925/01/04) 1면 4단.
- 민세學人. 「今年的 世界 米國私觀(五)」. (조선일보 1925/01/08) 1면 4단.
- 민세學人. 「今年的 世界 伊國私觀(一)」. (조선일보 1925/01/09) 1면 5단 조간.
- 민세學人. 「今年的 世界 伊國私觀(二)」. (조선일보 1925/01/10) 1면 6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一)」. (조선일보 1925/03/14) 1면 5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二)」. (조선일보 1925/03/15) 1면 5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三)」. (조선일보 1925/03/16) 1면 5단 조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四)」. (조선일보 1925/03/18) 1면 5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五)」. (조선일보 1925/03/19) 1면 5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六)」. (조선일보 1925/03/20) 1면 5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七)」. (조선일보 1925/03/21) 1면 5단 석간.
- 민세學人. 「孫中山과 中國革命(九)」. (조선일보 1925/03/23) 1면 4단.
- 민세學人. 「一九二五年의 最大懸案: 日米關係의 今昔觀(上)」. (조선일보 1925/01/01) 5면 1단 신년호.
- 安民世. 「一九二五年의 世界形勢大觀(三)」. (조선일보 1925/12/24) 1면 4단.
- 安民世. 「一九二五年의 世界形勢大觀(七)」. (조선일보 1925/12/30) 1면 5단.

- 안재홍. 「萬水千山을 恨望하면서」. (시대일보 1924/04/01), 4면 1단
안재홍. 「아아 그러나 그대는 朝鮮사람이다」. (시대일보 1924/05/20), 2면 1단.
안재홍. 「英國政爭 側面觀」. (조선일보 1924/11/03) 1면 5단 석간.
안재홍. 「危難中國의 壁上大觀」. 『신조선』 3권 7호(1934. 12. 15.)
一記者. 「庚申年의 거듭(上)」. 『개벽』 6호(1920. 12. 15)

2. 『선집』 수록 자료

- 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 編. 1981. 『민세안재홍선집 1』. 서울: 지식산업사.
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 編. 1999. 『민세안재홍선집 5』. 서울: 지식산업사.
高麗大學校博物館 編. 2005. 『민세안재홍선집 6』. 서울: 지식산업사.
안재홍. 「孫中山 先生을 弔함」. (조선일보 1925/01/28) 1면 1단.
『日知錄』

3. 2차 자료

- 김명구. 2018. 「안재홍의 1920년대 구미(歐美) 정세 인식」. 『대구사학』 131집. 287-320.
김수태. 2003.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사회사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24집. 91-118.
김인식. 1997.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상과 운동」.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인식. 1998a.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이념의 형성과정과 조선정치철학」. 『한국학보』 24집 4호. 206-233.
김인식. 1998b. 「해방후 안재홍의 민공협동운동」. 『근현대사강좌』 10집. 37-73.
김인식. 1998c.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의 과학성론」. 『사학연구』 55~56집. 853-872.
김인식. 1998d. 「해방후 안재홍의 중경임정영립보강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집. 281-304.
김인식. 2000a. 「신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검토: 안재홍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권 1호. 119-143.
김인식. 2000b.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한 우익주체의 현실인식 변화」. 『근현대사 강좌』 11호. 152-189.
김인식. 2003. 「안재홍, 중도의 길을 걸은 신민족주의자」. 『내일을 여는 역사』 11호.

210-225.

- 김인식. 2005.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1944-1948』. 서울: 선인.
- 김인식. 2005.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서울: 선인.
- 김인식. 2007. 『안재홍의 신간회 운동』. 『애산학보』 33집. 83-112.
- 김인식. 2011.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민족혁명론』. 『한국인물사연구』 16호. 261-299.
- 김인식. 2012. 『안재홍의 ‘己未運動’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한국인물사연구』 18호. 459-498.
- 김인식. 2015.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론』. 『한국인물사연구』 23호. 143-181.
- 박상우. 1981. 『제1차 국공합작과 코민테른의 역할』. 『법학연구』 23권 1호. 부산대학교. 461-476.
- 반병률. 2006. 『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논쟁-급진론과 완진론』. 『동양정치사상사』 5권 2호. 101-129.
- 배경한. 2011. 『신해혁명 전후시기 손문의 아시아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52집. 1-15.
- 손승희. 2004. 『1920년대 국가주의파의 균벌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학보』 50집. 237-263.
- 송한용. 2004. 『直皖전쟁과 봉천균벌의 관내진출』. 『중국사연구』 28집. 227-257.
- 윤대식. 2005.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관』. 『한국사학보』 20호. 289-316.
- 윤대식. 2013a. 『한국 민족주의의 쟁점: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에 대한 자존적 변명』. 『정신문화연구』 36권 2호. 331-362.
- 윤대식. 2013b. 『실천지로서 안재홍의 벽상관』. 『한국정치연구』 22집 3호. 213-236.
- 윤대식. 2018. 『건국을 위한 변명: 안재홍, 전통과 근대 그리고 민족과 이념의 경계인』. 서울: 신서원.
- 이상익. 2011. 『安在鴻의 ‘다사리主義’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31집. 203-240.
- 이정식. 1976. 『민세 안재홍의 『자서전』』. 『신동아』(11).
- 이황직. 2011.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1권. 107-151.

- 정윤재. 1991. 『안재홍의 해방전후사 인식과 “조선정치철학적” 처방』. 김영국 外著, 『韓國政治思想史』. 서울: 박영사.
- 정윤재. 1993. 『한민족 이상국가와 ‘다사리민주주의론’』. 『국제관계연구』 6집, 101-125.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정윤재. 1999. 『다사리국가론-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 서울: 백산서당.
- 정윤재. 2002. 『안재홍의 조선정치철학과 다사리 이념』. 정윤재 외 공저, 『민족에서 세계로 - 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 서울: 불명.
- 정윤재. 2005. 『일제강점기 민족생존의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사』. 4권 1호. 35-45.
-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과주: 한길사.
- 한나 아렌트. 홍원표 옮김. 2010.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고양: 인간사랑.
- 한영우. 1987.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사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집. 257-281.
- 홍원표. 2013.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행위, 전통, 인물』. 고양: 인간사랑.
- Chung, Yoon Jae. 1988. “A Medical Approach to Political Leadership: An Chae-Hong and A Healthy Korea 1945-1948.” *Dissertation for Ph. 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Hawaii, Manoa.

투고일: 2018.10.14. 심사일: 2018.11.22. 게재확정일: 2018.12.13.

The Intersection of Self-Reliance and Flunkyism Revealed in the External Awareness of Colonial Political Intellect in 1924-25: Ahn Jae-hong's View and Attitude Toward the Chinese Revolution

Youn, Dae Shik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colonial intellectuals showed a clue to his identity and rebirth as political intelligence through the self-reliance and flunkyism of external perceptions projected by the pres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Korean intellectuals' awareness of the issue was brought up through the press. They argued that restoring Korea's public sphere was both a legitimate right to Japan's imperialist invasion and a guarantee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universal history. Since then,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Korea's independence and liberation at the point where the current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are at the border. Ahn Jae-hong i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the media struggle through intelligent discourse.

Ahn's external perception was that he focused first on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o outsiders and enhanc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However, Ahn's eyes were practically restored to focus on the interior, namely Korea's independence and liberation. Therefore, it cannot be devalued that his view and attitude were merely unrealistic and passive resistance of empty arguments and discourses just by looking outward. It is not fair to say that he has complied with the existing Chinese civilization and imperialist evolutionary theories.

Key Words | Ahn Jae-hong, self-reliance, flunkyism, political intellect, external awareness